

3번째 연하남과 로맨스...비결? 끊임없는 대화

이번엔 16세 연하와 사제간 연애 로맨스는 영원히 하고 싶은 장르 '수학은 어렵다'는 편견 깰 기회 저요? 수학과는 일찍 이별했죠

사춘기의 예민한 무용과 고교생은 정확히 20년 뒤 낭만주의자 수학 선생님이 됐다.

연기자 임수정(42)이 데뷔작이었던 2001년 KBS 2TV '학교4' 이후 20년 만인 10일 tvN 새 수목드라마 '멜랑꼴리아'를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안방극장의 첫 무대였던 학교"를 다시 배경으로 삼으면서 "내게는 새로운 시작과도 같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새 시작'을 함께 하는 파트너는 무려 16세 연하의 연기자 이도현(26)이다. 임수정은 수학과 고교생 역할인 그와 사제간 로맨스를 펼친다. 2017년 tvN '시카고 타자기'의 유아인, 2019년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장기용에 이어 세 번째 '연상연하 커플' 상대를 맞는 임수정은 "나이를 뛰어넘는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 "수학을 매개로 한 독특한 로맨스"

드라마는 수학을 공통분모로 가까워진 임수정과 이도현이 세상의 편견과 주변의 만류를 뚫고 사랑을 이뤄가는 이야기다. 임수정은 수학이라는 색다른 소재를 보자마자 "뇌가 전류를 받아 반짝반짝해지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과생이었던 학창시절, 수학을 짧게 사랑하고 금방 멀리 보냈어요. 하하!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어떻게 연기



연기자 임수정이 2일 tvN 새 수목드라마 '멜랑꼴리아'의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손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16세 연하 이도현과 나이를 뛰어넘는 로맨스"를 펼친다. 사진제공 | tvN

하나 걱정을 많이 했죠. 촬영을 하면서 뜻밖에도 수학이 삶에 밀접하게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학을 주제로 한 대사들이 정말 아름다웠고요."

그동안 안방극장에서 '연하남'과 이루는 로맨스를 그려 잇따라 화제물에도 성공했다. 임수정은 비결로 "상대와 끊임없는 소통"을 들었다.

"제가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로맨스 장르를 할 때마다 파트너와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외형적인 합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기운을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예쁜 사랑 이야기가 그려진다고 믿어서 상대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도현이는 특히 깊은 감성이 묻어나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 어렵지 않게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었죠."

● "로맨스 장르, 영원히 할래요"

임수정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전지현(1997년), 신민아(1998년) 등에 이어 새롭게 주연 드라마를 내놓으면서 '톱스타 컴백 대열'을 완성했다. 신민아가 주연해 지난달 종영한 tvN '갯마을 차차차'는 12.7%, 전지현이 나서 현재 방영 중인 '지리산'은 최근 9.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자연스럽게 흥행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임수정은 "다른 무엇보다 좋은 동료·스태프와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운"이라고 말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말 잘 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해요. 로맨스 장르에 다시 활기가 도는 것도 고무적이고요. 다양한 작품이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여성배우로서 로맨스 드라마에 애착이 있어요. 시청자가 허락한다면 영원히 하고 싶은 장르예요."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수학은 어렵다"는 편견이다. 이에 대해 "주인공들이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깨는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도 단박에 깰 것"이라고 말했다. "매개가 무엇이든 순수한 교감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청자들도 드라마의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한소희 "마이네임 베드신 처음부터 논의"



한소희

연기자 한소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의 베드신 장면이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서 결정됐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2일 소속사 9아트엔터テイン먼트는 "해당 장면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처음 논의됐다"면서 "극중 한소희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촬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주고받았고, 최종적으로 배우와 제작진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소희가 지난달 말 '마이 네임' 관련 인터뷰에서 해당 베드신 촬영에 대해 "촬영 도중 알게 됐다"고 말해 논란이 빚어졌다. 소속사 측은 "고민과 논의 끝에 촬영 도중 해당 장면이 최종 결정됐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에스파, 미국 최대 추수감사절 축제서 공연



에스파

그들 에스파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추수감사절 축제 무대에 선다. 에스파는 25일 미국 뉴욕에서 펼쳐지는 'Macy's Thanksgiving Day Parade' (메이시스 핑크 데이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올해로 95회째인 축제는 미국 백화점 브랜드 메이시스가 주최하는 대규모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행사이다. 에스파는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헤럴드스퀘어로 향하는 퍼레이드 카에 오른다. 또 현장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미국드라마 '글리'의 대런 크리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소울'의 작곡가 존 바티스트 등 스타들도 함께한다.

강다니엘, 커뮤니티 폐쇄 요구 소송 패소



강다니엘

엔터테인먼트 101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폐쇄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019년 "디시인사이드의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수천개씩 게재되고 방치돼 있다"며 관련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인터넷 게시 공간의 표현물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지선 1주기...추모책 '멋쟁이 희극인' 출간



故 박지선

2일 개그맨 고 박지선의 1주기를 맞아 가운데 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동료이자 친구인 개그맨 김숙·송은이와 배우 박정민·이윤지가 직접 엮은 '멋쟁이 희극인'이다. 박지선이 생전 남긴 207편의 글과 그림을 모아 고인의 이름으로 펴냈다. 제목은 박지선의 SNS 계정명이기도 하다. 동료들은 "고인이 들려주고 싶었던, 그렇지만 들려주지 못했던 즐거운 이야기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했다"면서 "박지선이 늘 함께하고 사랑했던 책을 펴내겠다"고 밝혔다. 박지선은 지난해 2월 36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박보검 해군병장 진급...9일 호국음악회 진행



박보검

해군 복무 중인 연기자 박보검이 최근 병장으로 진급하고 9일 호국음악회를 진행한다. 박보검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해군 창설 76주년 기념 호국음악회에 사회자로 나선다. 해군 군악·의장대대 소속 문화홍보병으로 복무 중인 박보검은 1일부로 병장으로 진급해 계급장을 달았다. 내년 4월30일 전역할 예정이다. 박보검은 남은 복무 기간에 해군 각 부대를 돌며 안보콘서트 등에 나설 전망이다.

14년 만에 돌아온 '거침없이 하이킥' 14년 전 그때처럼 '거침없이 하이킥'

'청춘다큐'로 재탄생...주연제한자리에 유튜브 다시보기 열풍...영상 40만뷰↑

2007년 종영 이후 14년 만에 다큐멘터리로 돌아온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이순재·나문희·정준하·박해미·정일우 등 '거침없이 하이킥'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10월29일 방송한 '다큐플러스 청춘다큐-거침없이 하이킥(청춘다큐)'이 불러온 열기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시트콤 '다시보기' 열풍이 불고 있다. 12일 방송하는 '청춘다큐' 2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시트콤의 대표적 연출자 김병욱 PD가 연출한 '거침없이 하이킥'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방영하면서 20%(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순재 가족의 바람 잘 날 없는 일상을 다채롭게 그려 MBC '논스톱' 시리즈, SBS '순풍산부인과' 등과 함께 '시트콤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인기를 이끈 연기자들이 '청춘다큐'에서 모였다. 앞서 '뉴 논스톱' '커피프린스 1호점' 등을 다룬 '청춘다큐' 제작진은 많은 시청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를 기획해왔다. 연기자들은 '거침없이 하이킥' 세트장을 재현한 스튜디오에서 추억을 되새기며 시트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민정도 '민민'(서민정·최민용) 커플 등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12일 들려줄 예정이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MBC 유튜브 공식 계정과 네이버 등으로 공개된 관련 영상이 많게는 40만뷰를 넘겼다. "다들 그대로라 정말 몽글하다" "시트콤을 다시 했으면 좋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주역들을 모은 다큐멘터리 '다큐플러스 청춘다큐'. 사진제공 | MBC

겠다' 등 400여개가 넘는 댓글도 모았다. 시청자들은 MBC M이 다큐멘터리 방영 시기에 맞춰 시트콤 전 편을 편성한 소식도 적극 공유하고 있다.

연기진들과 시트콤 제작진도 감회에 젖은 분위기다. 정일우, 신지 등은 '청춘다큐' 방송 직후 SNS를 통해 "짱하다"며 다큐멘터리 촬영 사진을 올렸다. 2일 박해미는 스포츠동아에 "식구 같은 선후배를 다시 만나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여전히 시트콤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을 보며 배우로

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춘다큐' 연출자 김현기 PD는 "김병욱 PD도 '정말 좋았고 몽글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방송가에서는 '거침없이 하이킥'에 대한 관심이 시트콤 제작에 새로운 활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엠넷 '이머전시', 웨이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등 시트콤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K팝 스타들의 '빌보드 진격작전'

'마이 유니버스' 글로벌 차트 9위 그룹 세븐틴 '빌보드200' 13위에 블랙핑크 리사도 '머니'로 핫100 진입

케이(K)팝 스타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안착하며 시장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 그룹 세븐틴이 빌보드의 주요 차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일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노래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글로벌 200'

차트에서 9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200'은 전 세계 200여개 지역의 스트리밍·다운로드 횟수를 기반으로 인기곡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지난해 신설됐다. '마이 유니버스'는 또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인기도를 나타내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8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9월 24일 '마이 유니버스'를 선보인 뒤 5주 연속 두 차트의 10위권 안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도 솔로곡 '머니'(MONEY)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90위로 진입했다. 9월 84위로 순위에 들었던 '리리사' 이후 올해에만



방탄소년단과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두 번째다. 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리사는 앨범에 담긴 두 곡을 모두 '핫 100' 차트에 진입시킨 케이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라고 자평했다. '머니'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9위를 차지했다.

10월22일 미니 9집 '아타카'(Attacca)를 내놓은 그룹 세븐틴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3위로 들어섰다. 이들은

앞서 올해 6월 말 미니 8집 '유어 초이스'(Your Choice)로 이 차트 15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이보다 2계단 상승한 성적을 거뒀다.

이들은 빌보드 성적뿐 아니라 앨범 판매량으로도 자신들의 명성을 확인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2일 미국레코드산업협회로부터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300만 유닛 이상 판매된 음원에 주어지는 인증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5월 선보인 디지털 싱글 '버터'를 비롯해 모두 3장의 앨범과 5곡으로 '플래티넘' 이상 최다 인증을 받은 한국가수가 됐다. 세븐틴도 국내에서 두 앨범 연속 100만장의 초동 판매고를 기록하며 밀리언셀러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정연 기자 anjny@donga.com